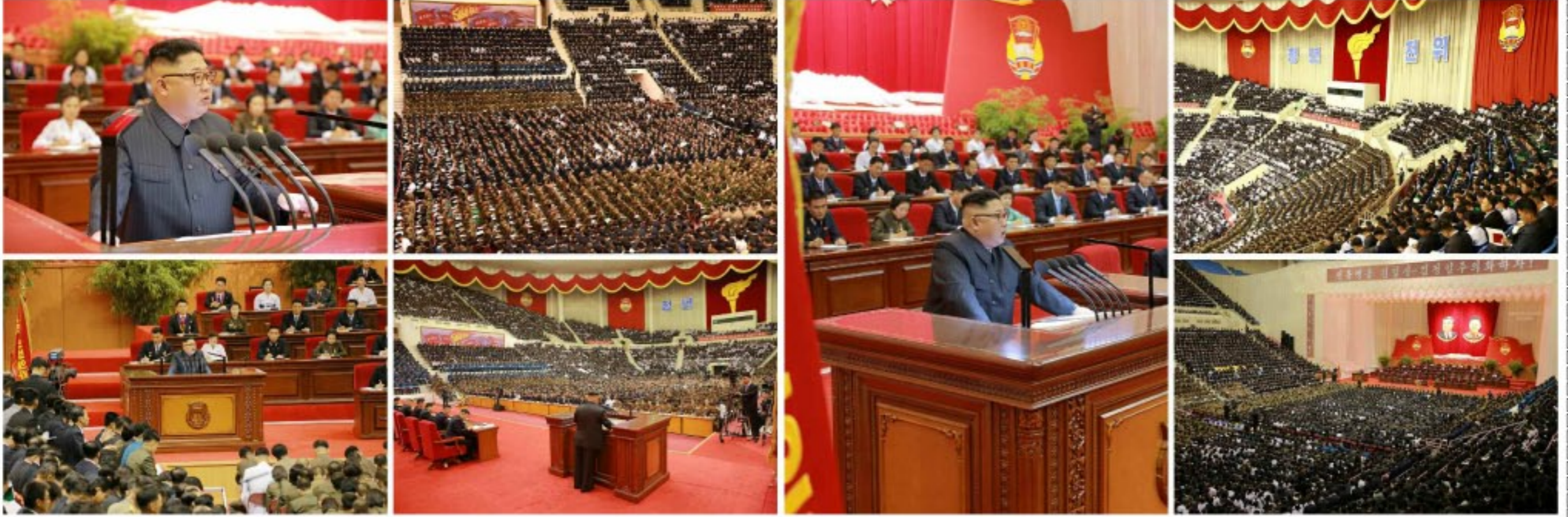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3 번 으 로 계 속

대회에는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대표회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당, 행정, 무력기관, 청소년교양관리부, 문 일군들과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재중조선청년련합회대표단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의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한없이 승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행도를 빛나게 계승하시어 주체적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열어가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들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며 백두산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가고있는 그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황병사동지, 최봉태동지, 김기남동지, 김수길동지, 김봉우동지, 박태성동지와 리일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장, 군대와 사회의 모범적인 청년동맹일군들, 동맹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또한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단장, 김영녀 재중조선청년련합회대표단 단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동맹대표들이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열화같은 흥분의 정을 담아 꽃바구니를 드리고 상가 인사물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과 재중조선청년련합회대표단 단장들이 축기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끝없이 총명한 청년전위가 되자!》라는 구호선장이 울려 퍼지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청년전위》라는 웨침으로 무성껏 화답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의 주악과 합창으로 시작된 대회에서는 집행부를 선거하였으며 서기부를 임명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경제, 사회계의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현대성 및 친선단체 대표들, 청년조직들에서 꽃바구니와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어온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사회계, 경제계 인사들과 청년조직들에서 꽃바구니와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어온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승인하였다.

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집시위원회의 사업총화에 대하여
3. 청년동맹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
4.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로 명명할데 대하여
5. 청년동맹규약개정제에 대하여

첫째 의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전중앙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부서가 하였다.

보고자는 사로청 제8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청년동맹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탁월한 사상과 행도만에 영광스러운 수행의 청년동맹, 당의 청년동맹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역사의 준엄한 폭풍을 맞받아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전인민적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여온 긍지로운 나날이었다고 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는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창조하고 세상에 불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위대한 사상, 위대한 정치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에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불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적

거인들로 든든히 준비된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실효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입니다.》

보고자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는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수행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숭고한 미래관이 어려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고 청년운동으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행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때 시기, 대내외마다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행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이 혁명투쟁과 사회적운동에서 가장 이르고 힘든 부분을 담당할 신봉대, 주력부대, 미래의 운명까지도 걸어진 골간부대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청년들이 전위대가 되어 혁명운동을 힘있게 떠밀어가는 주체적청년운동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청년중시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전략적으로서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을 수행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청년들을 우리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전위투사들로 키우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의 화불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과 청년들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행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땀을 흘려가시며 청년동맹과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억측부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계신다.

청년교양에 전사회적인 힘을 넣으며 청년동맹에 품적품직한 일감들을 맡겨 실전투쟁속에서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 창조적 거인들로 키우도록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 령도와 각별한 보살피심

속에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가 펼쳐졌다.

보고자는 총결기간 당의 령도밑에 청년동맹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청년동맹이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청년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한평생 크나큰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행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로청 제8차대회에 보내주신 역사적서한에서 청년들이 우리 혁명의 첫 세대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무뎠던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중심으로 입심단결하여 당의 행도를 충직하게 만들어내갈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청년운동을 수행의 사상과 행도를 높이 만들어내가는 혁명적인 청년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두말이 밝혀주시였으며 위대한 수행님을 모시고 사로청 제8차대회에 참석하시어 대회가 수행의 청년조직으로서의 청년동맹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치는 데서 전환적계기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주체 85(1996)년 1월에 진행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대표자회는 우리 청년동맹을 수행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회합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청년운동발전의 합법적적요구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따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시였으며 위대한 수행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품소 수여하시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사업과 임무에 대하여》와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어나가자》를 비롯한 수많은 교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동맹이 수행의 청년동맹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청년들이 주체의 청년운동의 전통을 이어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영예를 높이 펼쳐나가도록 결음결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청년동맹을 수행의 청년조직, 당의 믿음직한 정치후비대로 강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청년운동은 위대한 수행님들의 손길아래 시작되고 장성 강화되어 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이라는 독창적인 정식화를 주시였으며 청년동맹을 수행님과 장군님의 청년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기를 동맹사업의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서한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를 비롯한 교전적로작들에서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온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도록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으로써 우리 청년동맹을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행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동맹으로 빛내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청년동맹이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 없이 당과 수행의 사상과 행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만들어내는 총성의 전위대로 튼튼히 다져진것이야말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이며 총결기간의 주되는 총화이다.

성과는 다음으로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혁명적, 투쟁적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조선로동당의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시킨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이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입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속완성하며 우리 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근위대, 결사대로 억세게 준비시키는데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었다.

5 번 으 로 계 속

